

인터넷상의 재무설계 관련 프로그램 실태와 평가

김 경 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인터넷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बैं킹과 온라인 증권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금융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무설계 및 금융문제에 대한 일반가계의 인터넷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증대에 부응하여 은행이나 증권사, 투신사,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 외에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재무설계 서비스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설계 전문 인터넷 사이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재무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 제공 외에 재무설계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재무설계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 즉 (1) 개인 및 가계의 자산, 소득, 지출상태를 기록, 진단, 평가하는 프로그램 (2) 고객의 구매성향, 위험 회피성향 또는 투자성향, 그리고 고객의 재무관련 지식을 측정하는 프로그램 (3) 금융상품 선택 및 계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예. 이자계산기, 세금계산기, 보험료 견적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이고 조사대상 사이트는 7개의 재무설계 전문사이트와 5개의 은행 사이트, 3개의 증권·투신사 사이트, 그리고 4개의 보험사 사이트이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이자나 세금, 보험료 등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세 번째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었고 가계의 자산, 소득, 지출상태를 기록하고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첫 번째 유형의 프로그램이 가장 적게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사이트 성격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증권·투신사 사이트에서는 주로 이자나 만기금액, 월납입액 등을 계산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금융계산기와 고객의 투자성향을 체크하는 설문지 등을 제공하고 있었고 재무설계 전문 사이트와 생명보험사 사이트들은 생애주기별 또는 재무목표별 필요 자금 계산이나 가계 재무상태진단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계 재무설계의 기초단계에서 꼭 필요한, 소비지출이나 재무상태의 기록과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과 고객의 재무지식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지출과 자산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그 평가기준이 너무 단순하거나 임의적이어서 이에 대한 검토와 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재무설계의 절차에 따라 단순한 기록에서부터 평가, 재무목표 설정과 필요자금 계산,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상품의 선택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일련의 한 단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